

## 오보의 발생과 대책

서 정 우 교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 1. 문제의 제기

보도는 언론의 생명이며 존립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도를 떠난 언론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생각해서도 안된다. 언론의 대표적인 내용인 논설이나 해설 등은 기본적으로 보도로부터 연유된 기사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와 비판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과 발전의 기능 그리고 민주화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언론이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보도기능으로부터 확장된 기능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겠다.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있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특성상 바른 보도만을 지향한다. 따라서 바르지 못한 보도는 언론의 고유한 영역도 아니고 언론의 고유한 대상 또한 아니다. 오보는 바르지 못한 보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고 보겠다.

오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보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보 발생의 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을 현재 가장 괴롭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오보의 발생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언론은 오보의 발생배경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나라의 언론은 오보 발생 자체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오보는 계속 확장되고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언론으로 하여금 조그마한 실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구조적 변혁을 현재 경험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거의 극복하는 국제화사회의 등장,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부각되는 지식·정보화사회의 등장, 첨단과학기술사회의 등장, 그리고 매체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매체환경의 확장 등은 언론으로 하여금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오보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든 사회변화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사간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적기관이다.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회복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언론으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를 개선케 함으로써 대국민 공신력을 제고케하는 간접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란 뜻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오랜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중재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피해를 준 언론인에게 공히 잘못된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일깨워준 공헌을 남겨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언론인들에게 오보의 심각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기관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본고가 오보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이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토론회에서 오보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보도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의 변화

### 1) 보도의 위상과 기능

보도와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의 위상은 바로 언론의 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의 위상은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전개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된다. 공산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의 하위구조로서 이념적 무기와 혁명적 도구로서 규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치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로서 규정된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념이나 이론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의 본질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communication need)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니까 언론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가 역사 속에서 영글어진 사회적 구현체라는 뜻이다.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은 언론의 형상이고, 언론의 본질은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 데 반하여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숙명적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인 데 반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본